

## 이제는 간호다 '널싱 나우 한국위원회'

###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출범 ... 11월 1일 장충체육관

'널싱 나우' 글로벌 캠페인

Nursing now

간호사 없이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할 수 없다  
간호사 적정인력 배치하고 근무환경 개선해야

널싱 나우 한국위원회(Nursing Now Korea)가 출범한다. 출범식은 11월 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되는 '2018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열린다.

Nursing Now(이제는 간호다)는 국제간호협회의(ICN)와 세계보건기구(WHO)가 함께 추진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며, 버데트간호재단(Burdett Trust for Nursing)에서 후원한다.

2018년 2월 27일 영국 런던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캠페인 출범식이 열렸으며, 한국을 비롯해 각 국가별 위원회를 설립 중이다.

Nursing Now 캠페인은 간호사의 역할 강화 없이는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달성할 수 없으며, 지금이 바로 간호사를 병원과 지역사회에 충분히 배치하고 역할을 강화시키는 데 투자하고 지원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

하는 길, 그 해답은 바로 간호사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은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016~2030)의 17개 목표 중 하나인 '3. 건강과 웰빙'의 세부실천목표이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 완화치료 등에 대한 필수적인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Nursing Now 캠페인 홍보대사로 영국 왕세손비 케이트 미들턴(Kate Middleton)이 위촉됐다.

공동위원장은 영국 상원의원 로드 니겔 크리스프(Lord Nigel Crisp), 영국 상원의원 메리 왓킨스(Baroness Mary Watkins), 보스로나 보건부장관을 지낸 쉘라 틀로우(Sheila Thlu) 간호사가 맡았다.

Nursing Now 캠페인의 비전은 다음과 같다.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는 데 간호사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간호사가 참여해 영향력을 발휘한다. △간호사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받고, 간호사의 지위를 향상시킨다.

세부 활동목표는 △간호사 적정인력 배치 및 근무환경 개선 △간호사 교육 및 근무환경 개선에 정부 투자와 지원 확대 △간호법 제정 등을 통한 전문직 자율규제 강화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간호사 참여 확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담당부서 설치 및 간호국장(Chief Nursing Officer) 확보 △간호실무 혁신 및 근거기반간호 확산 등이다.

널싱 나우 한국위원회 출범식에는 ICN 아네트 케네디 회장이 참석해 특강을 한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 간호대학생 안전 및 인권 침해 실습교육 근절

간호계 입장문 발표 ... 법·제도 개선 위해 최선

간호계가 간호대학생 안전 및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 대상 간호실습교육을 근절해 나가겠다는 입장문을 10월 10일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와 17개 시도간호사회 및 10개 산하단체는 최근 언론과 SNS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교내 간호실습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신체를 직접 대상으로 한 실습이 이뤄진 것에 대해 '간호대학생 간호실습교육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간호계의 성찰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입장문의 주요 내용은 △학생 안전 및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 대상 간호실습교육 근절 △간호대학 교육평가에 있어 학생인권 침해여부 등 기준 마련 △양질의 간호실습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원 및 시설 기준 관련 법·제도 개정 촉구 등이다.

간호계는 먼저 "간호대학 교내 실습은 병원현장실습 전에 습득해야 할 핵심기본 간호술을 익히는 과정으로 예비간호사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추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때 활력징후 측정, 보호장구 착용 등 평소 실습해야 할 항목도 있지만, 관장·도뇨관 삽입·위관 삽입 등과 같은 슬기는 일반적으로 간호인체모형 등을 이용해 간호실습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학생의 안전과 인권에 위협성이 높은 술기에 대해서는 학생을 통한 실습교육을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간호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간호교육인증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증평가 기준에서 실습교육과 관련된 지표는 실습비 확보, 실습교과목 편성, 교원 및 시설기준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학생의 안전과 인권 침해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에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에 학생인권 침해와 관련된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실습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호계는 아울러 "간호사는 의료법상의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는 '자연과학계열'로 분류돼 있어 충분한 간호실습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원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다"며 "교원 수 및 시설기준에 있어 의학계열로 분류하거나 간호계열로 독립되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겠다"고 밝혔다.

교원 산출기준에 따르면 의학계열은 학생 8명당 교원 1명인 반면, 자연과학계열은 학생 20명당 교원이 1명에 불과하다.

정규숙 기자 kschung@



간호조직체계·문화혁신  
배지 달기 캠페인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에 서울의료원 간호부(간호부장 이호연)에서 참여했다. 사진은 간호부장과 파트장들.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에 충천시노인전문병원 간호과(간호과장 이은숙)에서 참여했다.

## 교과서 속 성차별 표현 개선한다

간호와 교사를 여자로 표현한 것 등

의사는 남자, 간호사나 교사는 여자로 표현하는 등 한 직업군을 하나의 성별로 특정 짓는 교과서 속 성차별 표현이 개선된다.

여성가족부는 교과서의 성차별 표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개선방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온라인 국민참여 공모 '바꾸면 쓸모 있는 성평등 교과서'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공모는 국민들이 초·중·고 교과서, 학습지, 유아용 교재 등 각종 교육자료에서 찾은 성차별 표현과 이를 성평등하게 바꾼 표현을 댓글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mogef.go.kr)에서 한 달간 진행했다.

국민들이 뽑은 교육자료의 성차별 표현으로는 여성과 남성의 특성, 역할, 직업, 외모 등에 관한 '성별 고정관념'이 총 614건(68.7%)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국어 교과서에서 남성적 어조와 여성적 어조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 실과 교과서에서 자녀를 돌보거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여성만 수행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 과학자·의사는 남자, 간호사·교사는 여자로만 그려져 있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기타의견으로는 독립운동가 등 역사적 위인을 소개할 때 여성을 포함하지 않거나 남성 위인의 조력자로만 소개하는 것, 교과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내용이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 위주로 설명돼 있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런점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교육자료의 성차별 표현을 개선하는 등 성평등 교육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 간협 대표자회의 간호정책 선포식 성공 개최 다짐

대한간호협회는 대표자회의를 10월 9일 협회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대표자회의에는 대한간호협회 중앙회 임원진,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과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올해 사업시행결과 및 회계보고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보고했다.

제5차 한·중·일 간호학술대회 참가 및 일본간호협회 방문 결과보고가 진행됐다.

이어 대한간호협회가 개최하는 '2018 간호정책 선포식' 일정과 프로그램 등을 점검하고,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진행되는 'Nursing Now 한국위원회' 출범식에 대해 논의했다. 간호정책 선포식은 11월 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다.

대표자들은 간호정책 선포식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대표자회의에서는 '간호대학생 간호실습교육에 대한 입장'을 채택했다. 입장문에는 간호계가 간호대학생 안전 및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 대상 간호실습교육을 근절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2018 대한간호협회 '간호정책 선포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 시 : 2018년 11월 1일(목) 12:30~17:20</li> <li>장 소 : 서울 장충체육관</li> <li>슬로건 : 대한민국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간호사가 주도하겠습니다</li> </ul>	<p>식 전 행사 (12:30~13:30) - 홍보 영상물 상영 - 포토존 등 이벤트</p> <p>공식 행사 (13:30~16:25)</p> <p>1부 - 개회선언 - 개회식 및 축사 - 간호정책 선포 - 슬로건 제창 및 퍼포먼스</p> <p>2부 - Nursing Now 한국위원회 출범식 - ICN 아네트 케네디 회장 특별강연</p> <p>식 후 행사 (16:30~17:20) - 축하공연 및 경품추첨</p>
---	--

한국콜마



## 프랑스 최초의 BB크림 누가 만들었을까?

뷰티 본고장 프랑스에서 최고의 인기를 끈 에르보리앙 BB·CC 크림을 '한국콜마'가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구요? 그럴 수밖에요. 화장품 제조사는 당신의 눈에 띄지 않는 화장품 뒷면에 있으니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화장품을 연구 제조하는 글로벌 NO.1 화장품 제조사 '한국콜마'입니다.

제조사를 확인하세요!  
화장품 품질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좋은 화장품 고르는 방법  
제조사를 확인하세요!

CGMP 1호·2호 한국콜마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관)